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10월 3일(목)

국가안보실 3차장,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목적 방미

- 국제 랜섬웨어 대응 회의 참석, 68개 참여국과 공동성명 발표 -
- 美 국가안보부보좌관과 양국 협력 심화 방안 논의 -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美 백악관의 초대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왕 차장은 앤 뉴버거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 등 美 NSC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제4차 국제 랜섬웨어 대응 회의(CRI)에 참석했습니다.

* CRI(Counter Ransomware Initiative) : 글로벌 랜섬웨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에 미국 주도로 설립한 국제 협의체로 68개국이 참여

이번 CRI에서는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 리처드 버마 국무부 행정담당 부장관 등 美측 핵심 인사가 참여해 글로벌 랜섬웨어 위협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참여국 간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과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美측 CTIIC(사이버위협정보통합센터)는 상업, 제조, IT, 통신 분야에서 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주목하며 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참여국들과 랜섬웨어 대응 방법과 국제협력 강화를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랜섬웨어 대응 공동성명에도 참여했습니다.

한편, 왕 차장은 美 앤 뉴버거 국가안보부보좌관과 양자 회의를 통해서 인태 지역 내 역량 강화, IoT 장비 보안, 해양 사이버보안 등을 논의하고,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에 대해서도 한미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랜섬웨어를 포함한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끝>